

“최저임금 인상, 국민성장시대 대전환점”

文대통령 “최저임금 1만원, 사람답게 살 권리 상징… 성공여부,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부담해소에 달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인상 결정된 것에 대해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 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중심의 국민성장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비서관 회의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하는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 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언급하며 “고통분담을 떠안아 준 사용자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회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의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들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 주느냐에 달려 있다”며 “지난 대선 때 최저임금의 인상과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지원 대책을 반드시 함께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을 지킬 때”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가지고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동원해 주기 바란다”며 “어제 관계부처 합동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연말까지 계속 점검

하고 보완해 나가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소상공인들과 영세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지원 대책을 믿고 변함없이 영업과 고용 유지에 힘써 주고, 노동자

들은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하여 주기 바란다”며 “국회도 지원 대책과 관련된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뉴스시



도의회 의원 4명, 우수의정대상 수상

정호윤·최영규·강용구·최영일 의원

정호윤(전주1)·최영규(익산4)·강용구(남원2)·최영일(순창) 도의원이 17일 대전시 유성 호텔CC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 주최 ‘제4회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 의정대상은 전국시도의회장협의회가 전국 794명의 광역의원들 가운데 지난 1년 동안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의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의원들을 선정해 시상하고 있다.

이날 수상한 정호윤 의원은 환경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강 살리기와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등 환경과 녹지의 보전, 사회적 약자를 위한 복지증진에 앞장섰다. 또한 악취 민원현장과 폐기물처리업체, 공공의료현장 등을 찾아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와 함께 관광객발의 새로운 대안인 생태관광지를 찾아 주민직접참여를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최영규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교육환경개선을 위해 중금속 유해물질 초과 검출학교 등의 현장을 방문하고 교육재능기부와 엘리트체육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와 간담회를 열어 대안을 찾았다. 또한 초·중등학교 수상안전교육과 학습더딤학생 교육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등 학생 중심의 활발한 입법 활동을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강용구 의원은 청년기본조례를 제정해 청년고용촉진과 창업 지원, 주거 안정 등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했다. 또한 농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비롯해 정보화 조례, 중소기업 수출 진흥 조례 제정은 물론 지리산 산악철도 노선 유치, 서남대 의과대 폐과계획 반대 및 정상화 방안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끌어내는 의정활동을 전개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영일 의원(순창)은 농업의 부가까지 창출과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전통주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제정, 도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관광기념품 개발과 육성조례, 재난관리기금 조례 개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모는 물론 주택시장의 현실을 반영한 심의기능을 통해 도민 눈높이에 맞는 규정 개정을 이끌어내 의정대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날 수상한 의원들은 “이번 의정활동대상 수상은 도민의 삶과 지방의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지역발전은 물론 의회의 역할과 기능 향상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자연재해 대응체제 철저 점검”

김승환 교육감, “119·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해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은 17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 15~16일 300mm가 넘는 폭우로 인명과 재산 등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지역 주민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고 “도내에서도 언제든 자연재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응태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김 교육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번 충북지역의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아무래도 농촌지역보다는 도시지역의 피해가 클 것”이라며 “상황 발생시 학생안전과 시설안전에 대한 비상체제가 즉시 가동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그러나 “우리 교육청의 인적·물적 수단만으로 완벽히 대응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119, 지자체 등과의 연결망 등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김상곤 교육부장관이 지난주 기자 간담회에서 “교사 징계는 교육감 권한”이고 “성취평가제야말로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취지 중 하나”라고 밝힌 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초·중학교의 중간·기말고사 폐지 필요성’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유초중등 교육을 시도교육청에 이양하면 그 후에 각 시도교육청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신을 그었다. 그러면서 “우리 전북에서는 이미 초등의 경우 일제고사 방식의 중간·기말고사를 폐지하고 성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다. 중·고교는 토론을 통해 전체적인 큰 그림을 그린 뒤 이를 구체화하는 것은 단위학교로 넘기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김광수, ‘지방재정 확대·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 발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및 국민의당 전라북도당 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은 17일,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현재 대다수 지방자치단체들은 중앙집권적 행정 및 재정구조로 인하여 만성적 적자에 허덕이고 있으며, 최근 들어 사회복지관련 국고보조사업이 크게 확대되면서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대응 지방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 결국, 파탄직전에 이르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재정력이 낮은 지자체의 재정보전 기능과 지자체 간의 수평적 재정 불균등 조정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율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2006년 19.24%로 결정된 이후 10년 이상 동결되고 있어 지방교부세의 법정교부세율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광수 의원을 비롯한 여·야 의원 36명은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

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정부와 국회가 지방재정 확대를 위해 노력하도록 촉구함과 동시에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힘쓰도록 했다.

김광수 의원은 “지방재정 확대 및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 인상 촉구 결의안’에 여야를 가리지 않고 많은 의원님들께서 동참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전하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국회와 정부가 나서 파탄직전의 지방재정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정부는 이번 결의안을 통과되는 즉시, 지자체 간 재정불균등 및 격차 해소와 함께 열악한 지방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계속해서 지방분권,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광수 의원은 ‘지역인재 35%의무 채용 법안’, ‘지방교부세율 인상 법안’, ‘예타사업 진행시 지역균형발전 우선고려 법안’ 등을 발의했다. /김진성 기자

14살 소녀들

www.jbe.go.kr

전라북도교육청

JEOLLABUKDO OFFICE OF EDUCATION

여느 때와 같이 세 소녀는 집으로 가던 길이었습다.

건너편 횡단보도에 쓰러져 있는 할머니 한 분.

할머니의 상태가 위급하다는 것을 알고, 어딘가에서 휠체어를 빌려와 가까운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가족이 올 때까지 모두 자리를 떠나지 않았습다.

14살 소녀들의 기지와 사랑의 실천.

따뜻한 학생들이 있어

오늘도 전북교육은 웃을 수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잊지 않습니다

가난은 학교를 행복은 교육

지난 4월 전주 우림중 1학년 여학생 세 명(최수빈, 배은수, 박민지)은 효자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본부 근처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다 쓰러진 70대 할머니를 발견했습니다. 곧장 가까운 정영외과로 달려가 휠체어를 빌려다 할머니를 병원으로 모시고 갔고, 할머니의 가족들이 올 때까지 병실에서 곁을 지켰습니다. 이 따뜻한 인연은 5월 25일, 할머니께서 학생들에게 고마움을 전하기 위해 학교를 찾으면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